

1. 결합상품 이용현황 분석

신 선
연구원, ICT통계센터

◆ 분석 데이터 및 분석 목적

-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의 가구 데이터를 이용하여 2013년 결합상품 이용현황을 분석함
 -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는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동일 표본 추적 조사로 2013년에는 4,381가구의 미디어 기기 보유 현황, 서비스 가입 및 지출 현황 등을 조사함
 - 본 보고서는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의 가구 데이터를 이용하여 2013년 결합상품 이용현황과 2012년 대비 변화추이를 분석함
 - 결합상품은 유료 방송통신 서비스 중 2개 이상의 서비스를 결합하는 상품으로 결합상품에 포함되는 서비스로는 유선인터넷, 일반집전화(유선전화), 인터넷전화, 케이블방송, 위성방송, IPTV, 이동통신, 와이브로가 해당됨
- ※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(2013)와는 달리 결합상품에 이동통신 간 결합, 케이블 방송과 다른 서비스의 결합이 포함되어 결과가 다를 수 있음

◆ 결합상품 가입현황

- 2013년 결합상품 가입률은 36.5%이며, 가입 가구는 평균 3.2개의 서비스를 결합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결합상품 가입률은 2013년 36.5%이며, 가입 가구의 평균 서비스 결합 수는 3.2개인 것으로 나타남
 - 2012년 대비 결합상품 가입률은 2.8%p 증가했고, 가입 가구의 평균 서비스 수는 0.2개 늘어 2013년에는 2012년에 비해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가구와 가구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보임

〈표 1〉 결합상품 가입률

	2013(N=4,307)	2012(N=4,391)	증감
결합상품 가입 가구	1,570가구	1,480가구	+93가구
결합상품 가입률	36.5%	33.7%	+2.8%p

〈표 2〉 결합상품 가입 가구의 평균 서비스 결합 수

	2013(N=1,570)	2012(N=1,480)	증감
서비스 결합 수	3.2개	3개	+0.2개

- 가구원수별 결합상품 가입률은 2013년 4인 이상 가구가 58.7%로 가장 높고, 가구원이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
 - 2013년 가구원수별 결합상품 가입률은 4인 이상 가구가 58.7%로 가장 높으며 3인이 45.6%, 2인이 27.2%, 1인이 14.3%로 뒤를 이음
 - 2013년 가구원수별 결합상품 가입률은 2012년에 비해 모두 증가했으며 2013년, 2012년 모두 가구원이 많을수록 가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

〈표 3〉 가구원수별 결합상품 가입률

	2013(N=4,307)	2012(N=4,391)	증감률
1인	14.3%	10.5%	+3.8%p
2인	27.2%	25%	+2.2%p
3인	45.6%	41.6%	+4%p
4인 이상	58.7%	56%	+2.7%p

◆ 결합상품 서비스 유형 및 구성현황

- 결합상품 서비스 유형별 점유율은 DPS의 점유율이 2013년 55%로 가장 높고, TPS, QPS가 그 뒤를 이음
 - 결합상품 서비스 유형별 점유율은 이중 간 서비스 결합¹⁾만을 대상으로 분석함

1) 동일서비스를 2개 이상 결합한 경우는 제외함(예: 이동통신 서비스를 2개 이상 묶은 결합)

- 2013년 결합상품 서비스 유형별 점유율은 DPS가 55%로 가장 높으며, 뒤이어 TPS가 33.9%, QPS 이상은 11.1%로 나타남
- 2012년 대비 결합상품 서비스 유형별 점유율은 TPS만 하락세를 보여 -3.6%p 감소했고 QPS는 3.2%p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임

〈표 3〉 결합상품 서비스 유형별 점유율

	2013(N=1,580)	2012(N=1,474)	증감률
DPS	55%	54.6%	+0.4%p
TPS	33.9%	37.5%	-3.6%p
QPS 이상	11.1%	7.9%	+3.2%p
	합계	100.0	100.0

- 2013년 기준 결합상품 상위 10개 구성은 모두 유선인터넷과 결합된 형태로 구성되었으며, 유선인터넷-케이블방송 점유율이 11.4%로 가장 높음

- 2013년 결합상품 구성별 점유율은 유선인터넷-케이블방송이 11.4%로 가장 높고 유선인터넷-IPTV가 10.4%로 그 뒤를 이으며 상위 10개 구성은 모두 유선인터넷과 결합된 형태임
- 이동통신이 포함된 구성은 2012년 대비 모두 점유율이 상승했으며, 집전화(일반집전화, 인터넷전화)가 포함된 구성은 대체로 하락함

〈표 4〉 결합상품 서비스 구성별 점유율

(괄호는 구성별 점유율 순위)

	2013(N=1,657)	2012(N=1,565)	증감률
유선인터넷-케이블방송	11.4%(1)	10.6%(3)	+0.8%p
유선인터넷-IPTV	10.4%(2)	5.6%(8)	+4.8%p
유선인터넷-인터넷전화	9.0%(3)	12.2%(1)	-3.2%p
유선인터넷-이동통신	8.4%(4)	6.6%(5)	+1.8%p
유선인터넷-인터넷전화-IPTV	8.0%(5)	9.6%(4)	-1.6%p
유선인터넷-일반집전화(유선전화)	7.6%(6)	11.3%(2)	-3.7%p
유선인터넷-일반집전화(유선전화)-이동통신	5.8%(7)	5.2%(9)	+0.6%p
유선인터넷-인터넷전화-IPTV-이동통신	5.3%(8)	2.6%(12)	+2.7%p
유선인터넷-인터넷전화-이동통신	4.6%(9)	4.5%(10)	+0.1%p
유선인터넷-인터넷전화-케이블방송	3.8%(10)	5.8%(6)	-2.0%p

※ 결합상품 구성별 점유율은 2013년 기준 상위 10개 구성을 2012년과 대비하여 분석함

- 2012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인 구성은 유선인터넷-IPTV로 4.8%p 증가해 2012년 구성별 점유율 8위에서 2013년 2위로 순위가 상승했으나, 유선인터넷-일반집전화(유선전화) 구성은 2012년 대비 3.7%p 하락하며 순위도 2위에서 6위로 하락함

◆ **결합상품 제공 사업자 현황**

- **결합상품 제공 사업자의 점유율은 KT(olleh인터넷)가 가장 높고 SK브로드밴드, LG유플러스(LGU+)가 그 뒤를 이으며 이들 3개사의 점유율이 80% 이상으로 압도적임**
 - 2013년의 결합상품 제공 사업자별 점유율 순위는 KT가 33.7%로 가장 높고, SK브로드밴드(30.1%), LG유플러스(19.4%), 씨제이헬로비전(6.4%), 씨앤엠(4.6%) 순으로 나타났으며,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80% 이상으로 나타남
 - 점유율 상위 5개 사업자의 점유율은 KT를 제외하고 2012년 대비 모두 증가했으나 2012년 대비 순위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결합상품의 약정기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
 - 기타 사업자의 합은 2012년 대비 3.2%p 감소해 2013년 3.3%의 점유율을 나타냄

〈표 5〉 결합상품 제공 사업자별 점유율

순위	사업자	2013(N=1,657)	2012(N=1,565)	증감률
1	KT(olleh인터넷)	33.7%	35.0%	-1.3%p
2	SK브로드밴드	30.1%	29.0%	+1.1%p
3	LG유플러스(LGU+)	19.4%	17.4%	+2%p
4	씨제이헬로비전(CJ 헬로비전)	6.4%	5.7%	+0.7%p
5	씨앤엠(C&M)	4.6%	4.0%	+0.6%p
	기타	5.8%	9.0%	-3.2%p
	합계	100.0	100.0	

※ 기타 결합상품 제공 사업자는 2013년 기준 점유율 3% 미만으로 티브로드(t-broad), 씨엠비(CMB), 현대에이치씨엔(현대HCN) 등이 있음

◆ **결과 및 요약**

- **결합상품 가입률은 2013년 36.5%로 2012년에 비해 2.8%p증가했으며, 가입가구가 이용하는 평균 서비스 수는 3.2개로 2012년에 비해 다소 늘어남**
- **2013년 가구원수별 결합상품 가입률은 4인 이상 가구가 58.7%로 가장 높고, 2013년, 2012년 모두 가구원이 많아질수록 가입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**

- 2013년 결합상품 서비스 유형별 점유율은 DPS, TPS, QPS 순으로 나타남
- 결합상품 구성별 점유율은 모두 유선인터넷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, 이동통신 서비스가 포함된 구성은 2012년 대비 모두 점유율이 증가함
- 결합상품 제공 사업자의 점유율은 2013년, 2012년 모두 동일한 순위인 KT(olleh인터넷), SK브로드밴드, LG유플러스(LGU+), 씨제이헬로비전(CJ헬로비전), 씨앤엠(C&M) 순으로 나타남